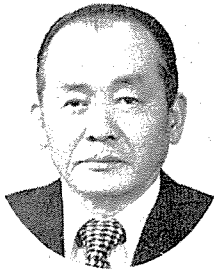


# 高度産業福祉社会 建設위한

— 모든 科学技術人의 有機的 協力으로



關 寬 植 會 長

尊敬하는 科学技術者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李漢彬 副總理·成佐慶 科学技術次長官과 來賓 여러분!

오늘 열세돛을 맞는 科学의 날에 즈음하여 科学技術政策研究세미나를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科学의 날은 우리나라 科学技術의 暢達과 振興을 爲한 一環策으로 지난 68年度에 制定된 以來 每年 有功者의 褒賞과 表彰을 비롯한 記念行事를 舉行하여 왔습니다.

우리 2百萬 科学技術人들은 또 4月을 科学의 달로 設定하고 各己 맡은 專工分野에서 各種 行事를 열어 그 동안에 研鑽한 學問의 發表와 討論으로 學術發展에 寄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科学技術은 아직도 未治한 狀態에 있으며 더욱 더 研究發展 시키고 開發革新해야 할 問題點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우기 全世界에 波及되고 있는 資源에너지 危機에 對處하면서 우리의 輿望인 高度産業福祉社会를 建設하기 爲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各 分野別로 精選된 科学技術이 要請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科学技術人에게 주어진 国家的 使命이며 時代的 要求로서 衆智를 모아 期必코 解決해야 할 当面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懸案問題의 效果的인 解決方案을 定立하고 相互有機的인 協力과 補完으로 國家가 追求하는 目標를 實現할 수 있는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

# 當面 課題는 精選된 科學技術

## 問題解決의 效果的인 方案定立 해야 —

것입니다.

이번에 本 聯合會가 科學의 날을 紀念하여 처음으로 科學技術政策研究세미나를 갖게된 것은 모든 科學技術人이 이러한 課題解決에 直接 參與하고 合理的인 推進 方案을 樹立하여 國家 百年大計를 爲한 里程標를 세우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發表될 課題는 李漢彬 副總理의 “80年代 經濟社會의 進路와 科學技術 開發”에 關한 特別 講演에 이어 80年代 科學技術開發戰略, 科學水準의 向上, 技術水準의 向上, 企業主導의 技術革新方向, 에너지技術開發方向, 科學技術에 對한 認識提高方向등에 對한 發表와 討論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隔意없는 意思發表와 眞摯한 討論으로 우리가 바라는 科學技術發展의 契機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오늘의 主題發表를 爲하여 「워샷」을 비롯한 諸般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關係機關과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行事を 爲하여 協調하여 주신 科學技術處 當局과 言論關係者 여러분께 深深的 感謝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家庭에 萬福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0年 4月 21日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閔 寬 植